



* 비상(非常)! 봄철 AI 발생으로 전국이 비상사태

4월 1일 첫 신고 이후 현재까지 55건 신고접수돼…

지난 2006년과 2007년에 발생한 AI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된 4월, 마음을 놓은 틈을 타 우후죽순으로 발생하면서 가금관련 산업 종사자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마음까지 심란하게 만들고 있다. 그간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역시 철새도래지를 따라 AI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었기 때문에 100% 정의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철새 분변을 통한 전파설이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대두되고는 했었다. 그런데 이번 AI는 철새도 이미 이동을 다 마친 계절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더욱 원인 파악이 힘들게 되었으나 전국에 현재 20건의 AI가 발생하고 전파원인이 사람이나 이동차량에 있었던 점에 있어서는 우리 오리산업 종사자들이 소독작업 등에 다소 미진했음을 인정하고 앞으로 더욱 철두철미한 방역활동에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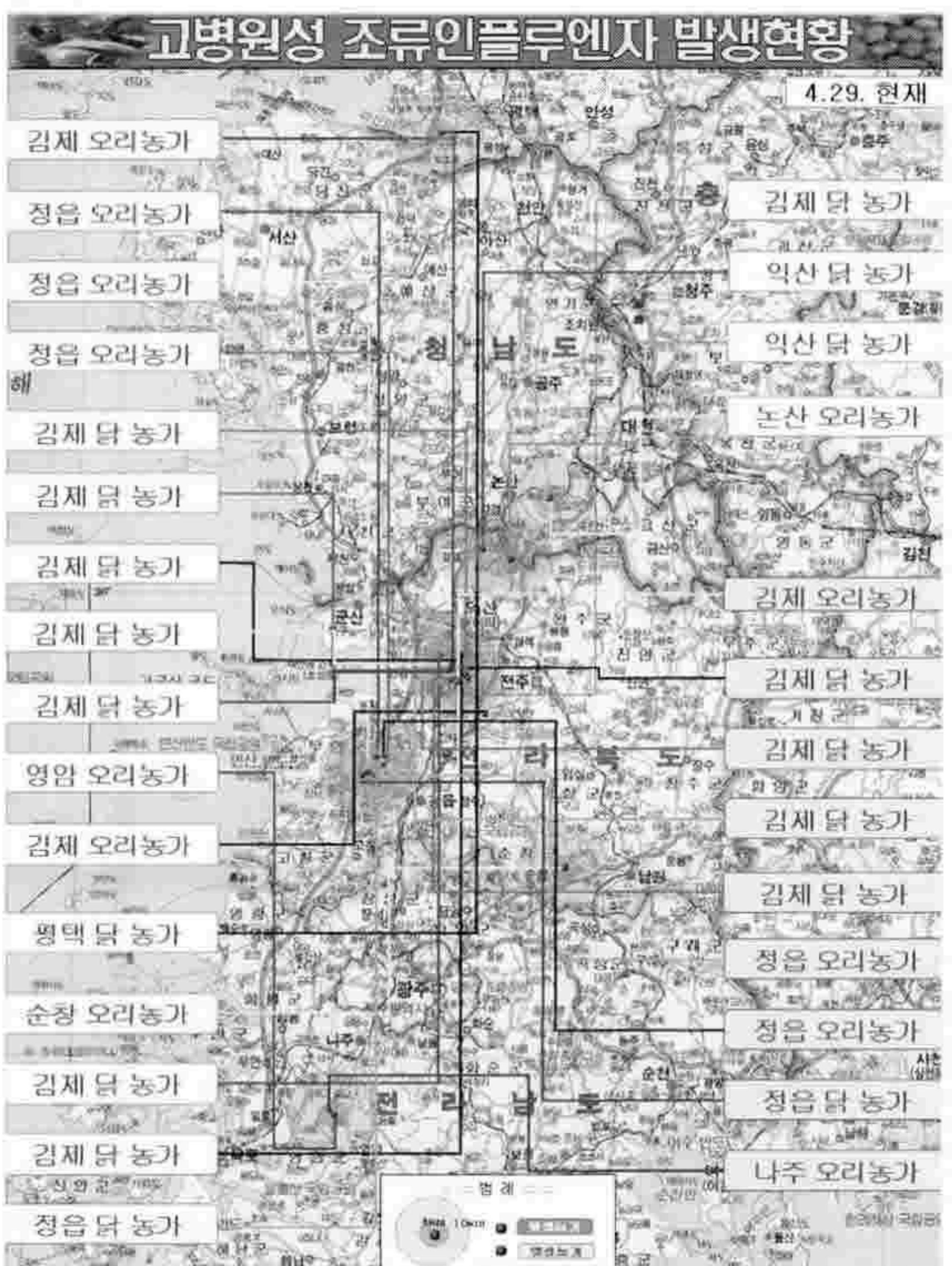
⑧ 2008 AI 발생현황

금년 AI 발생의 경우는 지난번과 달리 한달도 채 안된 상태에서 총 20건(닭 14건, 오리 6건)이 무더기로 발생하면서 확산속도 또한 매우 빠르다. 또한 지역적으로 볼 때 첫 발생지인 전북 지역이 17건으로 가장 많고 전남, 경기, 충남이 각각 1건씩 발생되었는데, 전북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차량의 이동제한 없이 이루어진 거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방역당국의 미비한 방역체계에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또한 금년에는 첫 발생농장인 전북 김제를 중심으로 반경 500m까지 살처분이 진행되었으나 인근지역에서 연쇄적인 발생이 이루어짐에 따라 3km로 확대 살처분이 실시되었다.

특히 전북지역에서 발생하던 AI가 경기도 평택까지 추가 발생되면서 4월 15일 '경계' 단계의 위기경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였다.

【표 1】 2008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표 2】 발생농가 현황표

구분	발생일자	축종	사육규모	지역
1차	4. 1(화)	산란계	150천수	전북 김제시 용지면 용암리
2차	4. 3(목)	육용오리	12천수	전북 정읍시 영원면 앵성리
3차	4. 6(일)	육용오리	18천수	전북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4차	4. 7(월)	육용오리	37천수	전북 정읍시 영원면 후지리
5차	4. 9(수)	산란계	30천수	전북 김제시 용지면 용수리
6차	4. 9(수)	산란계	6천수	전북 김제시 용지면 신정리
7차	4. 9(수)	산란계	10천수	전북 김제시 용지면 용수리
8차	4. 9(수)	산란계	11천수	전북 김제시 용지면 용수리
9차	4. 9(수)	산란계	40천수	전북 김제시 용지면 신정리
10차	4. 9(수)	육용종계	17천수	전남 영암군 신북면 월지리
11차	4. 11(금)	육용오리 등	920수	전북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
12차	4. 14(월)	산란계	25천수	경기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13차	4. 14(월)	육용오리	9천수	전북 순창군 동계면 현포리
14차	4. 16(수)	산란계	20천수	전북 김제시 용지면 봉의리
15차	4. 16(수)	산란계	16천수	전북 김제시 백구면 영상리
16차	4. 17(목)	육용종계	22천수	전북 정읍시 소성면 화룡리
17차	4. 19(토)	토종닭	35천수	전북 김제시 금구면 하신리
18차	4. 21(월)	육용종계	51천수	전북 익산시 여산면 두여리
19차	4. 21(월)	토종닭	10천수	전북 익산시 용동면 대조리
20차	4. 22(화)	종오리	12천수	충남 논산시 부적면

※자료출처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2008. 4. 30 현재)

▣ 이례적 계절인 4월 AI 발생, 도대체 왜?

2007년 11월에 발표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백서>의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06~2007년까지 발생한 AI의 경우 유전자형이 7개 농장 모두 ‘칭하이 (Qinghai)주’로 나타나면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이것이 철새에 의한 전파가 가장 유력한 요인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AI 특별방역기간(2007. 11 ~ 2008. 2)에는 발생농장과 관련한 현장조사와 종오리 농장을 대상으로 한 혈청 검사, 항원 · 항체 검사, 유전자분석, 겨울철새 및 텃새 포획 검사, 전파요인 분석 등이 이루어졌다.

지난 AI 발생의 경우 역학조사 결과 철새 분변 등 오염물질을 사람, 차량 등이 농장 내로 유입하거나 사료, 왕겨, 분변 수거 차량 등의 접근으로 인한 간접전

파 등을 발생 가능성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철새 이동시기가 지난 4월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태국, 베트남과 같이 국내에 토착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금년 발생지의 경우 서해안고속도로와 인접한 지역으로 나타나 발생지역을 오가던 차량이 고속도로 등을 타고 이동하여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지목되면서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예방을 위해서는 차단방역이 중요하나 이번에 발생한 농장들 중 무창계사도 포함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차단방역만 엄수한다 하여 AI 발생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